



국산 방산물자 제3국 수출 “기틀” 마련

- SCM 실무분과위에서 동의절차, 지연문제 개선키로 합의 -



미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산 방산물자가 제3국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측에서 제시한 개선요구사항을 검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韓·美 안보정책 개발을 위해 방산기술 분야의 협력촉진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중간 검토하였으며, 최종 연구 결과는 95년 SCM에서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양국의 실무관계관이 갖는 안보협력위원회(SCC) 및 군수협력위원회(LCC) 등 분과위원회의가 8월 10일 상오 하와이 미 대평양사령부에서 安秉吉 국방부 제2차관보와 安光男 군수국장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와 맥칼리프 미국방부 안보지원본부차장 및 찰스 C 캐논 미합참군수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안보협력위원회에서 미국원산기술 한국산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문제와 관련, 종래의 통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동의절차 지연문제 등을 개선키로 하는 등 새로운 정책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천년대에 소요될 차세대급 경전투 고등훈련기 개발을 위해 양국정부는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하며, 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F-16기에 장착할 내장형 전자전장비 사업과 K-1 전차 주포 개량사업 추진에 관해 양국실무자간의 토의가 있었다.

한편 韓·美연합 군수지원체제 증진방안이 중점논의된 군수협력위원회에서 韓·美양국은 유사시 미증원군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난 91년도에 체결된 전시지원협정(WHNS)의 추진계획 및 북한의 핵과 관련된 우발사태 발생시의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韓·미연합군의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군수지원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관련협정이 재검토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후속군수지원력을 증대시키기로 양국간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국군 자체의 군수지원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예비물자를 한국으로 이양토록 추진하고 미

군 항공기를 한국 내에서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수용 국방부 획득개발국장과 케이쓰 테드로우 美태평양 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주재하에 미국의 對한국기술이전 통제완화 방안과 韓·美 양국간 공동연구 개발사업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 방산기술 협력위원회(DTICC)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요망해온 항공산업기술 이전에 관한 검토결과를 美측이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韓·美 양국은 기술이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SCM시 이를 의제화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군수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양국 품질보증 실무 대표단을 구성하여 그 실행결과를 동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외에도 韓·美 양국은 지난해 양국이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한 21개 과제 중에 「지대공 미사일 유도기술 양해각서 연장」 외 2개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엔진용 내열 세라믹 기술」 외 17개 과제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 및 자료교환협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韓·美 양국은 그동안 양국이 함께 추진해온 공동연구개발사업이 육군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海·空軍 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공동연구분야 발굴을 위한 기술 협력단의 파견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은 과학기술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와 과학기술자 교환 계획을 연계시켜 과학기술자 교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대우중공업, K-200 장갑차 말레이시아에 수출

- 현지 조립방식으로 400여대, 2억4천만불 규모 -



한국 형 K-200 장갑차 400여대가 현지 조립생산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

K-200 장갑차의 주생산업체인 대우중

공업은 서울에서 8월 27~30일 열린 한국-말레이시아 방산공동위에서 말레이시아의 2개 방산업체와 2억4천만불 규모의 장갑차 수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미 K-200 장갑차는 말레이시아에 2차레에 걸쳐 64대가 수출되었으며 보스니아 내전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력기동 장비로 사용되어 뛰어난 성능과 기동성을 입증 받았다.

국내 수요 부족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壬亂시 사용되던 별황자총통 발사 재현



총통 등 5종의 대형 총통을 복원하여 발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들 총통은 해군 군수사 정비창에서 총통 5종과 동차, 발사대 및 철탄 등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철령전, 피령전 등 피사체는 외부 전문업체인 대원사에 용역으로 제작하고 한화에서 화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총통은 주로 거북선에 장착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번 발사시범은 별도로 제작된 발사대 위에 설치되어 발사되었다.

한편 이날 시범에 앞서 임란 당사국인 한국, 일본, 중국 학자가 참여하여 임란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는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렸으며 행사장에는 지난 5년 동안에 걸쳐 인양된 충무공 해전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였다. 특히 이날 전시한 전시물 중에는 거북선에서 실제 사용한 별황자 총통과 승자총통 등 9점과 거북선 등위에 꽂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칼모양의 송곳(도추: 刀錐)이 발굴 전시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향후 해군사관학교는 전문인력과 탐사모함을 비롯한 각종 장비 등을 보강하여 우리나라 해양 유물 발굴 및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

임진 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병기였던 총통 발사모습이 4백여년만에 재현되었다.

해군사관학교(교장 柳三男)는 8월 5일 사관학교 앞 바다에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사관학교 교장단, 국내외 학계 연구 전문위원회 및 軍관계자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진왜란시 해전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의 위력을 재조명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되살리는 역사의식과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총통발사 시범을 실시하였다.

이날 시범에는 지난 '92년 8월 한산도 문어포 앞바다에서 인양된 별황자 총통(국보 제 274호)을 비롯하여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창공을 繡 놓은 썬더버드 F-16 에어쇼

공군 본부는 지난 8월 13일 수원공군 비행장에서 한국공군이 보유한 각종 항공기와 그에 장착되는 각종 무장을 국민들에게 공개 전시하고 美공군의 F-16 곡예비행팀인 “썬더버드(THUNDERBIRDS)”를 초청하여 환상적인 에어쇼를 펼쳤다.

공군의 이번 항공무기체계 전시 및 썬더버드 에어쇼는 공군력의 위용 과시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상 정립과 군위상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盛夏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를 메울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모여 우리의 항공장비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에어쇼의 진수를 맛보았다.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총망라 한 항공무기체계전시에서는 최신예기 F-16, F-4 팬텀, F-5E 타이거, 호크훈련기, C-130 허큘리스, CN-235M, UH-60 블랙호크, 초대형 구조헬기 HH-47 치누크 등 항공기와 여기에 장착되는 각종 미사일, 기총, 장비 등이 전시되어 한국 공군력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썬더버드 곡예비행팀은 미공군의 주력기

인 F-16(화이팅 팰콘 : Fighting Falcon)을 운용하는 전문곡예비행팀으로, 1953년 6월 F-84G 썬더 제트기팀으로 창설되었고, 이후 여러번 기종이 바뀐후 1983년에 현재의 F-16 항공기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본행사에 앞서 공군군악대의 힘차고 아름다운 선율과 의장대의 화려하면서도 절도있는 의장시범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었다. *

